

김효주, LET 아람코 챔피언십 3연패 ‘정조준’

내일부터 4일간 경기 고양...2024·2025 2년 연속 우승
올 시즌 ‘LPGA 2승+KLPGA 2승’으로 커리어 하이

2026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를 종횡무진 누비는 김효주가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LET) 대회에 출전한다.

김효주는 8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 (파72)에서 열리는 아람코 코리아 챔피언십 (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PIF)의 지원을 받아 LET가 주관하는 PIF 글로벌 시리즈 중 하나다.

김효주는 지난 3월 LPGA 투어 파운더스컵에서 시즌 첫 승을 올리고 바로 다음 대회인 포드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5월에는 한국으로 넘어와 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더니 7월에는 자신의 후원사가 주최하는 롯데 오픈 우승까지 차지했다.

이번 주 아람코 대회에서도 우승한다면 LPGA 투어를 주 무대를 삼는 선수가 한국에서 한 시즌에 3승이나 거두는 보기 드문 기록을 세우게 된다.

더욱이 아람코 대회는 2024년부터 3년째 같은 뉴코리아 컨트리클럽에서 열려 김효주에게는 익숙하다. 김효주는 대회조직위원회를 통해 “이 코스는 정확성과 일관성, 인내심이 필요한 코스”라며 “3년 연속 우승을 위해 모든 것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많은 팬을 보유한 박성현과 이정은을 비롯해 LPGA 투어의 교포 선수 대니엘 강, 엘리슨 리 (이상 미국)가 출전한다. 또한 카를로타 시간다 (스페인), 올리비아 카원 (독일) 등도 출전해 우승컵을 놓고 경쟁한다.

/연합뉴스



2025년 아람코 코리아 챔피언십에 출전한 김효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버디 2점·이글 5점’...화끈한 공격골프 펼친다

KLPGA HJ중공업·동부건설 내일 개막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 우승자 가려
시즌 4승 서교림·김민솔 버디 대결 주목

이번 주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에서는 화끈한 공격골프가 펼쳐진다.

8일부터 나흘간 경남 양산시 에이원 컨트리클럽 (파72)에서 열리는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 (총상금 10억원·우승 상금 1억8천만원)은 KLPGA 투어 대회 중 유일하게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린다.

타수 합계가 아니라 파는 0점, 버디 2점, 이글 5점, 엘버트로스는 8점을 주며, 보기는 -1점, 더 볼보기 이상은 모두 -3점으로 처리된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버디 또는 이글을 노리는 것이 유리한 방식이어서 장타자나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크다.

KLPGA 투어 대회가 처음 열리는 에이원 컨트리클럽은 선수들이 포인트를 많이 노릴 수 있도록 페어웨이 폭은 넓게, 러프는 짧게 조성해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세팅했다.

이번 주 대회에서도 서교림과 김민솔의 공격골프 대결이 주목받는다.



서교림(왼쪽)과 김민솔

(KLPGA 제공)

시즌 4승으로 대상 포인트 1위를 달리는 서교림은 이번 시즌 280개의 버디를 잡아내 김시현과 함께 이 부문 1위다.

버디율에서도 1위 문정민 (20.3%)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 (20.2%)에 오른 만큼 버디에 관해서는 서교림이 일인자로 볼 수 있다.

서교림은 “이번 대회는 버디와 이글을 많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평소보다 훨씬 공격

적으로 플레이할 생각”이라며 “지난주에는 아이언 샷의 거리감이 잘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잘 점검하면서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솔도 만만치 않다. 김민솔은 지난해 대회에서 4라운드 동안 모두 27개의 버디를 뽑아내며 정상에 올랐다.

우승 스코어 51점은 2021년 첫 대회 우승자 이정민과 같은 대회 최다 점수 타이 기록이었다.

또한 김민솔은 이번 시즌 버디 280개로, 서교림에 비해 다소 뒤지지만 올 시즌 이글을 10개 나 잡아냈다.

김민솔은 “다텐딩 챔피언으로서 지난해 우승의 좋은 기억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지난 해와는 코스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최대한 빠르게 코스에 적응해 유연하게 공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가 끝난 뒤 시즌 상금 랭킹 15위까지는 오는 22일 전남광주 해남에서 개막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출전권을 받는다.

시즌 상금 랭킹 1위 김민솔, 2위 서교림 등 상위권 선수들의 출전은 사실상 확정됐지만, 10위에서 20위 사이 선수들의 상금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여자배구 대표팀, 2027년 월드컵 출전 확정

LA올림픽 출전권 걸러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7 국제배구연맹 (FIVB) 월드컵 (전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선다.

FIVB는 지난 5일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7 월드컵 32개 출전팀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2일 기준 세계랭킹 (27위)

에 따라 월드컵 무대에 승선했다.

대표팀은 지난 8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준결승 진출에 실패, 상위 3개 팀에 주어지는 월드컵 출전권을 놓쳤으나 세계랭킹으로 막차를 탔다.

월드컵은 2027년 8월20일부터 9월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열리며 LA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팀 중 1-3위 팀은 LA 올림픽에 직행한다.

/연합뉴스

김은지·김채영, ‘초대 챔프’ 도전

IBK배 여자바둑 월드컵마스터스 4강 진출

김은지 9단과 김채영 9단이 IBK기업은행배 여자바둑 월드컵마스터스에서 초대 우승에 도전한다.

김은지는 지난 5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에서 열린 대회 8강에서 일본 우에노 리사 4단에 119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일찌감치 우세를 잡은 김은지는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완승을 거뒀다.

김채영은 중국 탕자원 7단의 대마를 포획해 181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4강 대전 추첨 결과 김은지는 위즈잉, 김채영은 리사오시와 맞붙게 됐다. 4강은 내년 1월5일,



IBK배 4강 진출자들. 왼쪽부터 김은지, 위즈잉, 김채영, 리사오시. (한국기원 제공)

결승 3번기는 6-8일 열린다.

IBK기업은행배 우승 상금은 2억원, 준우승 상금은 8천만원이다.

/연합뉴스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